

유엔아동기금 (UNICEF)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국제아동개발기구

“어린이에게 투자하라.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어린이이다.”

— 제임스 그란트 (전 유니세프 총재) —

박 동 은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I. 어린이를 도와주는 유니세프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는 전세계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해 일하는 유엔기구이다.

1946년 2차대전이 끝난 직후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유니세프는 지난 60년간 '차별없는 구호'의 설립정신에 따라 국적과 인종, 성별, 종교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구호의 손길을 전해 왔다. 전세계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155개 나라에서 그 나라의 정부 및 민간기구들과 협력하여 어린이를 위한 영양, 보건, 식수 및 위생환경, 기초 교육, 어린이 보호, 긴급구호 등의 아동개발사업을 펼치고 있다.

1. 유니세프와 아동권리 발전의 역사

■ 1946년 12월 11일 : 유니세프 창설

2차대전 직후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유럽과 중국의 어린이들을 위해 유엔은 유니세프(유엔국제아동긴급구호기금,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를 창설

■ 1950년

유엔은 유니세프의 임무를 유럽과 중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으로 확대

■ 1953년

유니세프가 유엔상설기구가 되어 영구적으로 세계 어린이를 돕는 역할을 맡게 됨(본래의 명칭에서 International과 Emergency를 빼고 현재의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가 되었으나 널리 알려진 UNICEF라는 약자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함)

■ 1950년대

WHO(세계보건기구)와 공동으로 보건캠페인 실시- 결핵, 말라리아, 트라코마, 인도마마 등의 전염병 퇴치에 주력

■ 1959년 11월 20일 :

10개항의 유엔아동권리 선언

■ 1960년대

아동사업을 각국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포함 시키도록 추진하는 한편 아동교육과 가족계획을 지원

■ 1965년

국가간의 우호를 증진시킨 공로로 노벨평화상 수상

■ 1979년 : 세계아동의 해

유엔은 1979년을 세계아동의 해로 선포하고 유니세프를 국제아동개발사업의 주관기구로 임명, 아동권리를 기념하는 행사와 향후의 아동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 1980년대

유니세프는 1983년 설사로 인한 탈수증 예방, 예방접종, 어린이 영양개선을 위한 모유수유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 캠페인’ 시작. 80년대 말까지 계속된 이 캠페인으로 약 1천 2백만 명의 어린이가 생명을 구한 것으로 평가

■ 1989년 11월 20일 :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의 권리를 총망라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됨

■ 1990년 9월 30일 : 세계아동정상회담

71개국의 정상을 비롯하여 159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유엔본부에서 세계아동정상회담(World Summit for Children)이 열림

1990년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 선언과 2000년까지 성취해야할 27개 아동상황 개선 목표와 행동계획 채택

■ 2001~2002년

유니세프는 어린이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의 ‘어린이를 위한 지구촌운동(Global Movement for Children)’ 과 ‘아동보호서약(Say Yes for Children)’ 캠페인 전개 (1억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

■ 2002년 5월 8~10일 : 유엔아동특별총회

(UN Special Session on Children)

1990년 세계아동정상회담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0년까지 달성할 새로운 목표를 담은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 발표

■ 2006년 12월 11일 : 유니세프 창립 60주년

2. 유니세프의 조직

유니세프는 전세계 190여개 나라에 조직을 가지고 있어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어린이 지원 사업을 펼친다. 155개 나라와 지역의 개발도상국 대표사무소는 어린이들을 위해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한국을 비롯한 37개 선진국에는 유니세프국가위원회가 조직되어 개발도상국의 아동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모금과 홍보 및 교육사업을

실시한다.

유니세프의 아동개발사업을 위해 7천 명의 직원이 본부와 세계 각국에서 일하고 있다.

1) 유니세프 본부(UNICEF Headquarters)

■ 본부(Headquarters, 미국 뉴욕)

뉴욕에 있는 유니세프 본부는 정책결정기구인 집행이사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집행이사회는 36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이사국은 3년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 의해 선출된다. 이사국의 지역별 분포는 아프리카 8개국, 아시아 7개국, 동유럽 5개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 5개국, 서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12개국으로 되어 있다.

사무국은 총재(Executive Director)의 책임하에 유니세프가 전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어린이를 위해 펼치는 실제적인 활동을 총괄한다. 현 총재는 2005년 5월 새로 취임한 앤 배너먼(Ann M. Veneman) 씨이다.

■ 유럽지역사무소

(Regional Office for Europe, 스위스 제네바)
한국을 포함한 37개 선진국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업무를 관할한다.

■ 구호물품조달본부

(Supply Division, 덴마크 코펜하겐)
유니세프의 개도국 아동개발사업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구매하고 보관, 배송한다.

매년 7억 불 상당의 물품을 세계 각국으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하고 있다.

2004년 한 해 동안 아래와 같은 구호물품을 조달하였다.

- 소아마비 백신 25억 개 (유니세프 물품의 절반을 차지)
-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살충처리된 모기장 730만 장
- 3억 9천만 불의 예방백신과 백신보관용 냉장 기구세트
- 6,707만 불의 말라리아 치료약품(아르테미시닌)
- 7,100만 불 상당의 교육기자재
- 기타 천막, 담요, 식수정화제, 생활용품 등의 긴급구호물품

■ 이노첸티 리서치센터

(Innocenti Research Centre, 이태리 플로렌스)
유니세프의 조사연구기관으로 아동문제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하며, 어린이와 관련된 정책을 분석·개발한다.

■ 브뤼셀사무소

(Brussel Office, 벨기에 브뤼셀)
각국 정부의 유니세프기금을 섭외하고, 정책 결정자와의 협력을 조정한다.

■ 일본사무소 (Office for Japan, 일본 동경)

각국 정부의 유니세프기금을 섭외하고, 정책 결정자와의 협력을 조정한다.

2) 유니세프 지역사무소

(UNICEF Regional Offices)

유니세프는 아래와 같이 7개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유니세프 지역사무소는 해당지역 국가의 대표사무소들이 현지 어린이들을 위해 펼치는 아동개발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며 평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Office, 태국 방콕)

■ 남아시아 지역사무소

(South Asia Regional Office, 네팔 카트만두)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사무소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gional Office, 요르단 암만)

■ 서부/중앙아프리카 지역사무소

(West and Central Africa Regional Office, 세네갈 다카)

■ 동남아프리카 지역사무소

(Eastern and Southern Africa Regional Office, 케냐 나이로비)

■ 동유럽/독립국가연합 지역사무소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Regional Office, 스위스 제네바)

■ 라틴아메리카/카리브연안 지역사무소

(The America and Caribbean Regional Office, 파나마 파나마시티)

3) 유니세프 대표사무소(UNICEF Field Offices)

유니세프의 156개 대표사무소는 155개 개발도상국과 1개 지역(팔레스타인점령지역)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구호기구들과 협력하여 어린이의 영양개선과 보건서비스 확대, 식수공급과 위생환경 개선, 기초교육, 어린이 보호, 긴급구호 등의 아동개발사업을 펼쳐 나간다. (세부국가 및 지역은 별첨 표 < P131, 유니세프가 활동하는 나라와 지역> 참조).

4)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National Committee for UNICEF)

우리나라를 포함한 37개 선진국에는 유니세프 국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국가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주창하는 한편 유니세프가 전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장기적인 아동개발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세계어린이 상황과 유니세프의 활동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민간부분으로부터 기금을 모아 유니세프본부로 지원한다.

유니세프 국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나라 (37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미국, 벨기에, 산 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체코,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호주, 홍콩

3. 유니세프의 예산 (2004)

유니세프는 각국 정부와 기업, 개인 후원자들이 내는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2004년도 유니세프 수입은 19억 7천 8백만 불

〈유니세프국가위원회 기부금 순위〉

(단위: 천 불)

순위	국가명	기금액
1	일 본	103,208
2	독 일	89,613
3	네덜란드	66,679
4	이태리	55,929
5	미 국	48,940
6	프랑스	41,365
7	영 국	27,480
8	스페인	27,226
9	스위스	15,901
10	스웨덴	10,432
11	호 주	9,439
12	캐나다	8,675
13	한 국	8,334
14	핀란드	7,967
15	포르투갈	7,116
16	홍콩	6,897
17	그리스	6,688
18	덴마크	6,159
19	벨기에	3,383
20	오스트리아	3,126

〈정부 유니세프기부금 순위〉

(단위: 천 불)

순위	국가명	기금액
1	미 국	262,782
2	영 국	187,957
3	일 본	155,605
4	노르웨이	135,130
5	네덜란드	113,405
6	스웨덴	111,597
7	캐나다	86,705
8	덴마크	38,147
9	호 주	32,199
10	이태리	29,407
11	핀란드	22,002
12	프랑스	16,618
13	스위스	16,563
14	아일랜드	14,158
15	벨기에	13,868
16	독일	8,695
17	뉴질랜드	5,910
18	스페인	5,816
19	룩셈부르크	3,258
20	한 국	3,100

로, 이 중 70%는 정부 등 공공부문으로부터 모금된 것이며, 나머지 30%는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등을 통한 민간모금이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2005년 현재 연간 약 1천만 불의 기금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긴급구호 사태가 발생한 지역과 최빈국에서 전개되는 유니세프의 기본사업에 주로 쓰이고 있다. 일부 기금은 한국위원회가 직접 해당국가와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북한,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등의 아동개발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유니세프의 2004년도 직접사업비는 13억 4천 4백만 불로, 조기아동발달(34%), 종합면역사업(22%), 여자어린이 교육(21%), 어린이 보호(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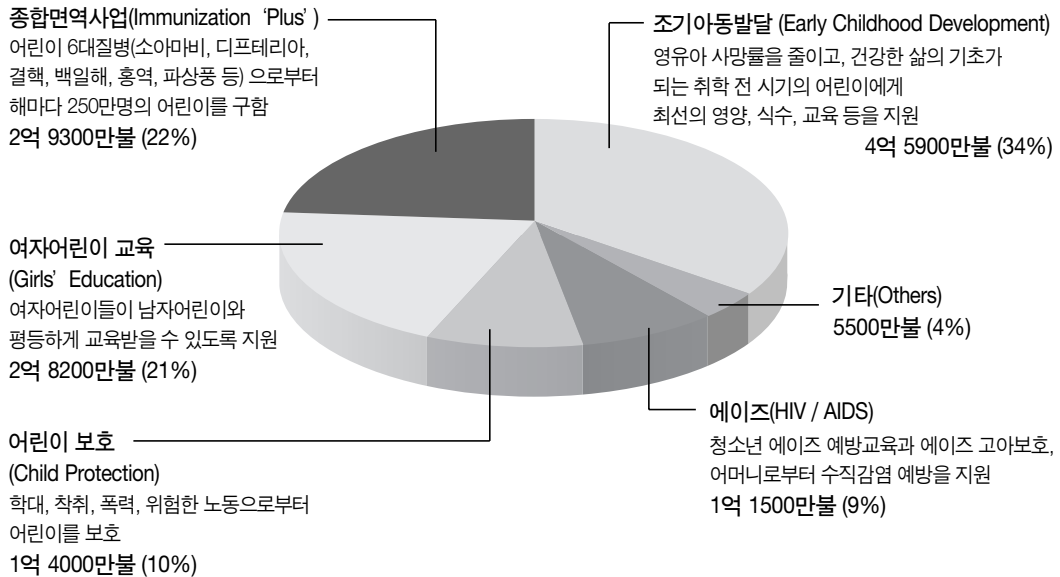
에이즈(9%) 등 유니세프의 5대 중점사업에 지원되었다.

지역별 지원규모는 동남부 아프리카(24%), 서부/중앙 아프리카(20%), 남아시아(18%), 중동/북아프리카(16%), 동아시아/태평양(9%),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연안(6%), 동유럽/ 독립국가연합(4%), 지역간 조정(3%) 순이었다.

4. 세계의 어린이들

날마다 3만 명, 1년에 1천 1백만 명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이 가난과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6억 명의 어린이가 하루 1불 미만으로 살아가는 극빈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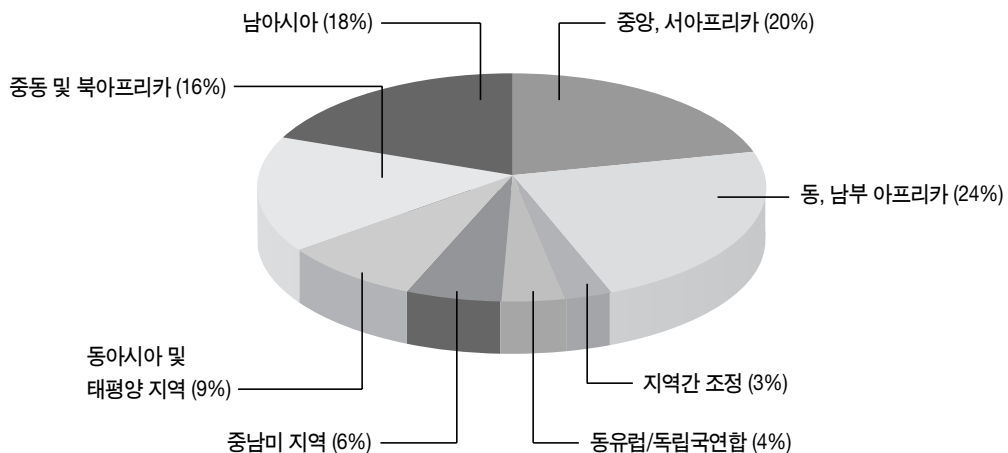
2004 유니세프 중점사업별 사업비



총 13억 4천 4백만불

*(프로그램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6천 4백만 불은 제외하였음)

2004 유니세프 지역별 직접사업비



총 13억 4천 4백만불

* 프로그램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6천 4백만 불은 제외하였음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48%를 차지함

- 예방접종 못 받는 어린이 1백 40만 명
예방접종은 지난 20년 동안 2천만 명의 어린이의 생명을 구했지만 아직도 1세 미만 영아 4명 중 1명은 기본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다. 해마다 1백 40만 명의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사망한다.
- 영양실조 어린이 2억 명
영양부족으로 체중이 미달되는 어린이 인구는 2억 명에 달한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는 영양실조는 어린이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큰 원인이다.
- 오염된 물을 마시는 인구 10억 명
10억의 인구가 안전한 식수를 마시지 못한 채 살아간다. 오염된 물로 인한 설사병으로 날마다 5천 명의 어린이가 생명을 잃는다.
- 화장실 없이 살아가는 어린이 3명 중 1명
어린이 3명 중 1명은 화장실 없는 환경에서 살아간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어린이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아주 높다.
- 초등학교 못 다니는 어린이 1억 1천만 명
초등학교 취학연령 어린이 1억 1천만 명이 학교

에 다니지 못하며 이중 60% 이상이 여자어린이이다.

- 어린이 노동자 2억 5천만 명
14세 미만 어린이 2억 5천만 명이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70%는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 전쟁터의 소년병 30만 명
18세 미만 어린이 30만 명이 전쟁터에서 소년병으로 싸우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강제 징집되거나 가난 때문에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군대에 들어간다. 지난 10여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었으며 전쟁고아가 되었다.
- 에이즈고아 1천 5백만 명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어린이의 수는 1천 5백만 명이 넘는다. 이들 중 90%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있다. 에이즈고아들은 가난과 폭력, 착취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 에이즈에 감염된 개발도상국 어린이 중 80%가 5세 이전에 사망하지만 치료받는 어린이 비율은 5% 미만이다.

〈 유니세프의 2006 ~ 2009 중점사업 〉

유니세프의 2006-2009 중점사업	유엔이 정한 새천년개발목표
1) 영유아 생존과 발달 2) 기초교육과 성평등 3) 에이즈 퇴치 4) 어린이 보호 5) 어린이권리를 위한 정책 지지와 파트너십	1) 절대빈곤과 기아를 퇴치한다 2) 모든 어린이가 초등교육을 마치도록 한다 3) 성평등을 강화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한다 4) 어린이 사망률을 낮춘다 5) 모성사망률을 낮춘다 6)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을 줄인다 7) 지속가능한 환경개발을 이룬다 8)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

5. 유니세프의 2006-2009 중점사업

유니세프는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제시된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을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4년 단위로 중장기 전략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니세프의 전략계획은 2002년 유엔총회에서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8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 MDG)와 대부분 일치한다.

중장기전략계획에 따라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유니세프는 여자어린이 교육과 조기아동발달, 종합면역사업, 에이즈퇴치, 어린이 보호 등 5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아동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유니세프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향후 4년 동안 영유아 생존과 발달 증진, 기초교육 확산과 성평등, 에이즈 퇴치, 어린이 보호, 어린이 권리를 위한 정책 지지와 협력관계 강화 등 5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다.

가. 영유아 생존과 발달

어린이사망률 감소는 새천년 개발목표의 제4항이다. 유니세프는 0세부터 만 3세까지의 영유아와 이들을 돌보는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보건서비스와 영양, 식수/위생환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쟁이나 자연재해 지역의 어린이를 특별지원할 것이다.

■ 목표와 추진전략

- 어린이사망의 주요원인이 되는 기본질병에 대한 예방접종률 확대 (250만 어린 이의 생

명을 구하는 효과)

- 정부 및 다른 유엔기구들과 협력하여 유아의 영양과 보건 분야 적극 지원
- 재정 지원 및 교육훈련을 통한 가정과 지역 사회의 역량 강화
- 식수와 위생시설 개선으로 보건상황 개선
- 긴급사태 발생지역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구호활동
- 모든 나라에서 90% 예방접종률을 달성. 모든 지역에서 최소 80%의 예방접종률 달성을 목표로 예방접종캠페인 전개
- 말라리아 발생지역에서 모기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모기장 보급률이 최소 60%가 되도록 모기장 보급
- 비타민 A 공급 확대
- 완전모유수유율 높이기

나. 기초교육과 성평등

기초교육 확대는 새천년 개발목표의 제2항과 제3항에 공통으로 관련된다. 유니세프는 이를 위해서 초중등교육에서의 성차별문화를 없애고 특히 여자어린이들이 기초교육과 실용적인 교육을 받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 목표와 추진전략

- 소수민족 어린이 등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교육기회 확대. 2015년까지 모든 어린이가 기초교육을 받도록 함
-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어린이 비율 40% 줄이기

- 여자어린이와 장애어린이를 중심으로 중등학교 진학률을 높여 2009년까지 초등과 중등학교에서 성 평등 달성
- 교육의 질 개선과 중퇴율 낮추기. 90%의 어린이가 5학년까지 교육을 마치도록 지원
- '어린이에게 친근한 학교'에 기초한 교육의 질에 관한 규정을 가진 국가비율 60% 늘리기
- 학업성취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20% 늘리기
- 긴급사태나 전쟁, 에이즈 등 교육이 위협받는 환경에서 교육시스템 조기 복구

다. 에이즈 퇴치

새천년개발목표의 제6항은 21세기 최악의 질병인 에이즈를 줄이는 것이다. 1분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에이즈로 사망하며 어린이 1명과 청소년 1명이 새롭게 에이즈에 감염된다. 에이즈고아의 수도 1천 5백만 명에 이른다.

■ 목표와 추진전략

- 항레트로바이러스(ARVs) 에이즈치료제 보급 확대로 모자감염 예방
- 현재 10% 미만인 에이즈 감염 임산부의 ARV 치료율 80%로 높이기
- 여성과 어린이에게 ARV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 강화
- 어린이용 ARV의 개발 및 보급 확대
- 에이즈관련 질병 치료에 효과적인 값싼 항생제 코트리모사졸 (Cotrimoxazole) 보급 확대

- 청소년에게 에이즈관련 정보와 예방법 전달

라. 어린이 보호

어린이보호문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모든 항목과 관련된다. 폭력과 착취, 학대, 위험한 노동 등 모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면 생존율이 높아지며 에이즈의 위험도 감소한다.

■ 목표와 추진전략

- 착취적인 형태의 노동,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과 정책, 프로그램 체계가 확립되도록 지원
- 전쟁이나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는 어린이 지원방법 개선
- 어린이범죄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사법제도의 개선 요청
- 가족찾기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아 감소 추진
- 각국 정부가 빈곤층에게 기초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능력 강화

마. 어린이 권리를 위한 정책 지지와 파트너십

이는 '빈곤퇴치와 국제적인 협력관계 발전'이라는 목표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이다. 어린이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은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다.

■ 목표와 추진전략

- 주요정책의 입안과 예산의 집행 등이 어린이 중심이 되도록 지원
- 어린이권리와 관련된 개선된 자료의 수집과

- 평가, 홍보 등으로 정부 정책에 영향력 행사
- 긴급사태시 해당국가와 지역사회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각 나라 정부 및 관련단체와 협력
- 어린이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지원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확실한 이행을 각 나라 정부에 촉구

II. 우리 어린이를 도와준 유니세프 :주한유니세프대표부(1950~1993)

유니세프는 1948년부터 우리나라 어린이를 지원하였으며, 1950년 3월 25일 대한민국정부와 기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에서의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6·25가 발발하자 유니세프는 고통받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분유와 담요, 의약품 등 막대한 양의 구호품을 지원해 주었으며, 그 이후 1993년 말까지 한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맞추어 기초보건서비스와 농어촌 영양개선, 과학교육,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유아교육 등의 어린이 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1948년부터 1993년까지 유니세프가 한국에 지원한 기금은 약 2천 3백만 불에 달한다.

■ 1950~1958년 긴급구호단계

6·25 전후 복구기간 중 분유와 담요, 의약품 등 긴급구호품 대량지원

■ 1963~1979년 아동의 생존·발달 단계

어린이의 영양 개선과 백신 생산, 농촌 기초보

건사업, 보건의료 교육, 교육기자재 공급 지원

■ 1980~1987년 조기아동교육사업 단계

교육자료 제작, 시범유치원 설치, 교사훈련, 부모교육 및 탁아사업 등 조기아동교육사업 중점 지원

■ 1988~1993년 세계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동반자 단계

- 선진국형 유니세프기구인 유니세프국가위원회 창립 준비

- 개발도상국어린이들을 위한 모금사업, 아동권리 홍보, 모유수유 권장, 세계교육사업 등을 시작함으로써 한국위원회 사업의 초석을 닦음

- 1993년 12월 8일,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법인 설립(당시 외무부, 현 외교통상부 등록)

■ 1993년 12월 말 주한유니세프대표부 철수

III.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994년 ~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개발도상국형 수혜기구인 주한유니세프대표부는 1993년 12월 말 한국에서 공식철수하고 1994년 1월 1일 선진국형 기구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유니세프의 대량지원을 받던 1950년대의 최빈국 한국이 다른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나라로 발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유니세프의 주

임무는 한국의 빈민아동 구호에서 개발도상국의 어린이 지원으로 바뀌었다. 한국위원회의 설립은 유니세프 내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주는 나라로 발전한 첫 번째 사례이며, 이제 한국이 수혜국이 아니라 제3세계 어린이들을 돕는 지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보다 책임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한국에서 유니세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내에서 세계어린이 상황과 유니세프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기금모금 사업을 통해 유니세프의 장기적인 아동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권리 홍보 및 세계교육, 모유수유 권장 등의 사업을 통해 어린이권리를 신장하는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1. 한국위원회 조직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구분되며, 친선대사와 특별대표, 각 분야의 후원클럽, 협력도시 등이 있어 유니세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가. 이사회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명망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한국에서의 유니세프 사업의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한다. 현재 현승중 회장이 이사회를 이끌고 있다.

나. 사무국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

로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 이하 후원자개발부, 판매사업부, 홍보부, 세계교육부, 총무부 등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박동은 사무총장이 사무국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다. 친선대사

유니세프의 친선대사는 주로 명망있고 평판 높은 문화예술인 중에서 임명된다. 현재 한국위원회의 친선대사는 영화배우 안성기 씨와 소설가 박완서 씨, 첼리스트 정명화 씨, 패션디자이너 앙드레 김 씨 등 4명이다. 이들은 유니세프를 홍보하고 기금모금사업에 참여하여 대중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라. 특별대표

문화예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사 중에서 각 분야별로 임명된다. 국악인 황병기 씨, 개그우먼 김미화 씨, 방송인 손범수 씨, 영화배우 이영애 씨, 이병헌 씨 등이 해당 분야의 특별대표를 맡고 있다.

마. 후원클럽 / 협력도시

사립초등학교 교장클럽, 어머니클럽 등 유니세프를 후원하는 클럽이 있으며 협력도시에 후원클럽이 조직되어 유니세프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유니세프의 협력도시는 강원도 원주시와 충청남도 금산군이다.

2. 한국위원회의 주요사업

가. 개발도상국 및 긴급구호 지원사업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다양한 기금모금 사업을 통해 모은 기금을 유니세프 뉴욕본부를 통해 전세계 155개국의 어린이 영양, 보건, 식수와 위생환경, 기초교육, 긴급구호 등의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005년 현재 1년에 약 1천 3백 3십만 불의 기금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쓰나미, 파키스탄 지진 등 긴급구호 사태가 발생한 지역과 최빈국에서 전개되는 유니세프의 기본사업에 주로 쓰이고 있다. 이 중 일부 기금은 북한,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한국위원회가 직접 지정한 국가의 아동지원사업에 쓰인다.

1994년 설립 당시 5천명 이었던 후원자 수는 현재 12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기금도 설립 첫 해에 비해 4배로 증가했다. 1994년 창립 이래 지난 12년간 유니세프한국위원

회가 지원한 유니세프기금은 약 6천 3백만 불에 달한다.

나. 기금모금 사업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니세프가 전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는 아동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기금모금 사업을 펼치고 있다.

1) 후원자를 통한 기금모금

- DM, TM 등을 통해 유니세프의 아동지원사업에 동참할 후원자를 모집/관리
- 매월 자동이체, 신용카드, 지로용지로 기금을 내는 월 정기후원프로그램 운영
- 향후 유산증여(legacy), 고액기부자(major donor) 등을 통해 기금모금 강화
- 2005년 현재 후원자 수 : 약 12만 명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개발도상국 지원기금 〉

연도	기금액
1994	\$ 3,513,281 (2,712,442,423원)
1995	\$ 3,474,516 (2,880,019,649원)
1996	\$ 3,345,596 (3,025,296,729원)
1997	\$ 2,125,095 (2,682,835,523원) (3~12월)
1998	\$ 2,368,594 (2,759,313,850원)
1999	\$ 3,155,896 (3,555,212,482원)
2000	\$ 3,274,489 (4,256,306,439원)
2001	\$ 5,107,115 (6,312,762,585원)
2002	\$ 6,047,044 (7,234,592,255원)
2003	\$ 7,587,443 (8,799,001,134원)
2004	\$ 9,361,251 (9,774,086,972원)
2005	\$ 13,305,411 (13,303,771,468원)
계	\$ 62,665,731 (67,295,641,509원)

〈 2005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개발도상국 지원금 〉

사업내용	기금액
비지정 일반기금	\$ 8,556,933 (64%)
지정 특별기금	\$ 4,748,478 (36%)
- 쓰나미 긴급구호	\$ 1,798,478
- 파키스탄 긴급구호	\$ 600,000
수단 다르푸르 긴급구호	\$ 200,000
- 북한 어린이 보건	\$ 450,000
- 캄보디아 에이즈	\$ 500,000
- 아프간 어린이 교육	\$ 300,000
- 베트남 식수/위생	\$ 250,000
- 중국 교육 및 에이즈	\$ 200,000
- 몽골 조기아동발달	\$ 150,000
- 스리랑카 (쓰나미 재건)	\$ 100,000
- 아프리카	\$ 200,000
계	\$ 13,305,411

2) 유니세프 카드/상품 판매

- 유니세프 본부에서 제공하는 카드와 선물용품을 판매하여 기금 마련
- 학교와 회사, 개인 등에게 연간 약 40만 장의 카드와 4만여 점의 선물용품 판매
- 판매 증진을 위해 유명인사를 유니세프카드 후원인으로 임명

3) 사랑의 동전모으기 (Change for Good)

-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기내모금을 하며 인천국제공항, 은행, 편의점, 호텔, 외식업체, 공공기관 등에 모금함 비치하여 기금 모금

4) 학교 모금

주제별 연 2회 캠페인 실시

5) 기업과의 협력 (Corporate Alliance)

기금모금 협력사업 협약 체결

6) 특별행사 및 기타 모금사업

- 사랑의 맨발걷기대회, 연말 자선디너쇼, 음악회, 바자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기금 모금
- 로열티/라이센싱 사업, 교회 모금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

다. 대외협력사업

1) 홍보 및 대외협력 사업

각종 홍보자료의 개발 및 보급,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홍보와 협약의 이행 촉진, 정부 및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유니세프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널리 알리고 세계의 어린이 문제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을 일깨우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CRC) 한국NPO연대

- 2005년 9월 15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비롯해 국내에서 아동권리 옹호활동을 하는 15개 단체가 연대하여 창립 (초대회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박동은 사무총장)
-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 및 국내아동권리 증진활동, 한국정부의 CRC 유보조항 철폐 촉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문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 촉구, 2008년도 CRC국가 보고서 제출시 민간보고서 제출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

■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NGO 연대사업

- 2005년 6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비롯한 22개 해외개발 NGO와 시민단체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국 정부의 해외원조정책 개선을 촉구해 지구촌 빈곤퇴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지구촌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 결성

2) 세계교육 사업

나눔체험교육과 세계교육시범학교 운영, 국제캠프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최빈국의 상황을 알리며 세계평화를 위한 갈등 해소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어려운 나라를 돕는 나눔의 정신과 세계시민의식을 키워주고 있다.

3) 모유수유 권장

(BFHI: Baby-Friendly Hospital Initiative)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아기에게친근한병원’을
임명하는 한편 의료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 현재, 50개 BFHI 병원)

4) 유니세프 본부와의 공동 에이즈캠페인

2005년 10월 25일 시작된 유니세프의 에이즈캠페인 ‘Unite For Children, Unite Against AIDS’에 동참하여 에이즈고아 등 에이즈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홍보와 기금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별첨 : 유니세프가 활동하는 155개 나라와 1개 지역

동아시아/태평양 (27개국)	나우루, 니웨, 동티모르, 라오스,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마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베트남, 북한, 사모아, 솔로몬군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쿡제도, 키리바시, 토켈라우, 태국,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남아시아 (9개국)	네팔, 몰디브, 방글라데시, 부탄, 세이셸,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중동/북아프리카 (19개국 + 1개 지역)	리비아, 바레인, 레바논,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집트, 쿠웨이트, 카타르, 튀니지, 케냐, 팔레스타인점령지역(Occupied Palestine Territories: OPT)
서부/중앙아프리카 (24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아, 베냉, 부르키나파소,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케이프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동남아프리카 (21개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룬디,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지부티, 짐바브웨, 코모로, 탄자니아
동유럽/독립국가연합 (20개국)	그루지아, 러시아,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연안 (35개국)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몬세라트, 바베이도스, 영국령 버진군도,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반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앵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터크스케이커스제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